



제 5차 아시아 태평양 인구회의 (The Fifth Asian Pacific Population Conference)가 12월 11일부터 17일까지 약 7일간의 일정으로 태국 수도 방콕에 소재한 UN 국제회의실 (United Nations Conference Centre)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을 비롯한 46개국의 부총리, 장관 및 고위 각료와 UNFPA, UNDP, WHO를 포함한 유엔기구 및 민간단체 47여개의 대표가 모인 가운데 개최되었다. 한국에서는 보건복지부 강윤구 기획실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이원희 사무관, 태국대사관 서기관 등과 가협 국제협력과 한희정과장, 최정희, 청소년복지과 이영숙과장 등 총 12명의 대표단이 참여하였다.

이번 회의는 1992년 발리에서 개최된 이후 10년 만에 열리는 회의로서, “아태지역의 인구와 빈곤 개선 대책”을 주제로 고위급회의와 각료급회의로 구분되어 진행되었으며, 본 회의와 동시에 12월 12일



~ 13일 양일 간 동 주제에 관한 NGO회의도 함께 개최되었다.

본 회의의 주요 목적은 1994년 이집트 카이로에서 개최된 국제인구개발회의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에서 채택된 ICPD 행동계획이 지역적인 차원에서 성공적으로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와 회원국들의 동 행동계획에 대한 재확인을 결의하는 것이었다. 이 행동계획은 당시 미국, 유럽지역 국가, 개발도상국을 포함한 179개국의 동의에 기초하여 통과되었으며, 특히 지속가능하고 인간 중심적인 발전

과 인구의 안정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표제회의에서 한국은, 각 의제별로 출산력, 인구 고령화, 생식보건 및 청소년 생식보건 등에 대한 국가 상황을 보고하였으며, ICPD 행동계획 의제 이행에 대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아태지역 회원국들의 발표들로 진행된 표제회의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이주 및 HIV/AIDS 문제가 이슈화되었다.

회의의 행동강령을 작성하는 초안결의문작성위원회(Drafting Committee)에서 가장 뜨거운 논쟁거리가 된 것은 인공임신중절(abortion)과 금욕(abstinence), 그리고 이를 포괄하는 생식권리(Reproductive Rights)에 대한 개념이었다. 인공임신중절과 관련해서, 참가국들 중 미국은 모든 인공임신중절이 위험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ICPD 행동계획 내용을 변경하려고 시도했다. 미국은 행동계획 내용 중, “안전하지 못한”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기 원했고, 실제로 부시 정부는 모든 생식보건 관련 사업이 인공임신중절을 지원하고, 조장한다는 주장 하에 UNFPA (유엔인구기금)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생식보건사업이 인공임신중절을 조장한다는 미국의 주장을 뒷받침 할 만한 뚜렷한 연구 결과가 없으며, 오히려 여성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한 점은 여러 연구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또 하나의 논쟁이 된 것이 금욕(abstinence)이었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도 미국은 모든 참가국들의 의견에 반대하며, 금욕이 너무 이른 청소년의 성(underage sex)을 방지하고, 생식보건을 증진하는데 있어서 가장 건강한 선택이며, 총체적인 생식보건증진 전략의 유일한 요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국을 제외한 다른 모든 참가국은 전 세계 인류의 삶의 향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이 아닌, 이용 가능한 모든 수

단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다. 같은 맥락에서 미국은 이러한 이슈들을 모두 함축하고 있는 생식권리(Reproductive Rights)라는 단어 대신에, 인권(Human Rights)라는 단어로 대체하기를 요구했다.

회의 중반에, 회의의 초안결의안에 대한 미국의 요구는 결의안 내에서 각주 및 부록 처리되었고, 모든 참가국이 미국에 대해 한나라씩 차례대로 발언하며, ICPD 행동강령에 대한 각국의 지지와 동행동계획이 인공임신중절이나 청소년의 성을 조장하지 않는다는 각국의 신념을 공고히 하였다.

국제가족계획연맹 아태지역사무소(IPPF ESEAOR)와 국제인구사업관리위원회(ICOMP)가 주관하고, 본 협회가 사무국을 맡고 있는 아태지역 인구개발협의체(APA/ICPD)의 주최로 개최된 NGO 회의에는 인구, 개발, 환경 관련 민간단체들이 대거 참석하여, 본 회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 NGO 차원에서 논의하고, 본 회의 정부대표단들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ICPD 행동강령을 재확인하는데 일조하였다. NGO회의를 통해 참여 민간단체들은 각국에 ICPD 행동강령 재확인을 촉구하는 "NGO Call for Action"을 작성하여, 본 회의의 참가자들 및 외부 관계자들에게 전달, 배포하였다. 또한 회의를 위한 임시적인 민간단체 협의체를 구성하여(Caucus for ICPD) 보다 집약된 결의문을 작성, 배포하기도 하는 등, 회의 기간 중 민간단체들의 활약이 매우 컸다.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인구회의이후 10년 만에 개최된 제5차 아태지역인구회의는 ICPD 행동강령 이행에 대한 아태지역 내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재확인하고, 각 주권국가의 특성과 상황에 맞는 인구 정책을 수립하는데 초석이 된, 중요한 회의로 기록될 것이다. **022222**